

賀詞

보광스님의 논문집 출판을 축하하면서

화갑을 맞아 논문집 『佛緣錄』을 펴내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더욱이 이 논문집이 도반과 동료교수, 상좌들, 그리고 제자들이 보광스님의 노고와 은혜를 기리고자 70여 편의 논문을 묶어 올리는 것이라 하니 참으로 값지고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무심당 보광스님이 걸어오신 길은 그대로가 한국불교와 조계종을 위한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특히, 한국불교학과 종립대학 동국대 발전에 기여한 스님의 업적은 눈부시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보광스님은 종단의 도제양성 일환으로 시작된 종비생으로 선발돼 체계적으로 불교학을 공부하신 현대교육을 받은 분입니다. 일본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세계적인 정토학자이며 정토종의 종정이신 스보이 준에이(坪井俊映) 교수문하에서 정토학을, 또한 현대선학의 대가인 경도대학의 야나기다 세이잔(柳田聖山) 교수에게서 선학을, 중국불교사학의 대가인 마끼다 다이료(牧田諦亮) 교수에게서 불교사학을 연찬하였습니다. 그 후 귀국하여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에서 20년 넘게 후학을 양성하면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에서 정각원장, 대외협력처장,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 등을 맡아 학교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대외협력처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발전기금 610여 억원을 조성하여 동국대학 일산병원 건립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대학원장 당시에는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을 개설하여 불교계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를 건립해 이끌어 왔으며, 황무지와 다름없었던 전자불전분야에 일찍이 눈을 뜨고 한국불교전서의 전산화, 한글대장경의 전산화 및 불교문화콘텐츠 사업을 주도해 오고 있는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백용성스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사상을 연구하는 대각사상연구원장이자 용성 문중의 중추로서, 만일염불결사회를 결성하여 염불행자들의 신심을 다지는 스승으로서, 조계종 종회의원이자 장학위원회 위원장과 화쟁위원회 위원으로서, 생명과 인권 등 다양한 사회활동가로서 보광스님은 시방세계를 부처님 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광스님이 만들어가는 부처님 세상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해보는 재미도 재미려니와 이제 화갑을 지나 또다시 어떤 ‘시작’을 하게 될지도 자못 기대됩니다. 불교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일념’의 가르침을 후학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리라 믿으며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불기 2554(2010)년 8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